창립 10주년 한국대학박물관 연구원회의 비전*

나 선 화 **

1. 대학박물관 기능 확대와 연구원의 역할 변모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박물관 연구원회의 학예연구원들은 협회를 통하여 많은 학예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유적발굴조사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학박물관의 조사연구 담당자로서, 박물관인으로서의 연대감을 형성하여 왔다.

대학박물관의 연구원들은 일반 국·공·사립박물관의 연구원들과 달리 교육기관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주요기능인 연구 분야의 인력으로서 지도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로서 역할도 있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규모의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대학박물관이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대학박물관의 연구원들은 유적 발굴 현장책임조사원으로서 박물관 연구기능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1980~1990년대 대학박물관의 주요 조사연구사업은 문화유적 발굴조사였기에 발굴조사의 현장 책임조사원이 된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은 점차 지역문화의 역사와 특성을 탐구하고 자료를 발굴하는 연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박물관 협회를 통하여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원이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연구원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 시점은 한국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특히 문화유적의 발굴조사에 치중하던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각 대학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전시실의 구축과 연구결과를 담은 다양한 전시기획이 시작되었고 일반인을 위한 박물관 교양강좌가 기획되었으며, 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을 확대, 신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예연구원들은 박물관 공간구성 설계의 제안자가 되고 전시기획자가 되며 사회교육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맡은 교육사가 되어야 하였다.

즉, 대학박물관의 기능이 사회교육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고학의 연구조교로서의 역할이 중심이던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은 박물관 기능의 활성화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박물관 전문인으로 변화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0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조 강연문(2004. 4. 16)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이에 따라 대학박물관 연구원회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의 학술대회와 연 1회의 해외 문화유적답사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면서 연구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대학박물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전시, 유물의 보존관리, 박물관의 각종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나누기도 하여 대학박물관의 발전방향은 물론 학예연구원의 정체성 정립과 역할평가를 모색하기도 하며 느리긴 하나, 꾸준하고 차분한 발전의 발걸음을 이어왔다.

이 10년의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회 역사는 한국대학박물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박물관장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늘 함께함으로써 한국대학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협력으로 이룬 아름다운 역사이었다.

요즈음 계층간의 분열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협력과 조화의 마당이 점차 좁아져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협력과 협조,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대학박물관 연구원의 자기개발과 전문직으로서의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혜로움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학박물관 연구원회는 또다시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시대를 맞아 한국대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학예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제 시작된 지역사회 속에 꼭 필요한 문화기반시설로서의 대학박물관은 그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보다 빠르게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욕구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들은 정보를 나누어주는 정보제공자로서의 구시대 역할에서 벗어나 정보소통자로서의 역할이 또 하나 추가되는 시점에 서있게 되었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박물관 연구원들은 각 전공분야의 연구자로서의 역할 외에 정보제공자, 전시기획자,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자, 교육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면서 박물관 관리운영의 총체적인 관리운영 실무자로서 역할도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대학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운영철학과 담론이 우리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부터 제안되어야 하게 되었다.

교육기관인 대학 내에서 연구조교로서 출발한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들은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으로서 확장되어가는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므로 대학박물관의 미래방향과 더 나아가 우리사회 내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일까지 맡아야 할 만큼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역할은 확대되고 변모되어 가고 있다.

2. 새 시대 학예연구원의 역할과 비전

이 시대의 한국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에게는 대학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의 내부구성원으로서 조사연구자, 소장품의 보존관리자, 전시기획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수행자, 시설관리 책임자 또한 박물관 공간설계, 체계구축계획의 중심 진행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대학박물관이 지역민의 생애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장함에 따

라 국민의 생애교육을 담당하는 역사문화교육사로서의 역할도 주어져서 많은 학예연구원들은 변화하는 한국박물관의 기능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도 확대·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회구조와 체계가 또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박물관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열정을 다하여 한국대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예연구원의 역할이야말로 미래사회에서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대학의 중심이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의 역할에 있다면 대학박물관에서는 각 지역의 문화유적 조사연구와 개발까지를 포괄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항상 소통시켜주는 정보 소통자이고 문화기획자인 학예연구원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도 그 누구보다도 미래사회의 방향과 특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시켜 새로운 기획은 몰론 새로운 사회의 구성담론을 제시하기도 하는 역사문화 예술의 전문가이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박물관의 연구기능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으로서의 대학박물관 학예원직을 대학의 교수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기도 하였던 인식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이고 호환적인 연구자이고, 합리적인 사회교육자로서, 문화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새로운 전문직인 것이다.

학예연구원이라는 전문직은 새 시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전문직이기에 그 역할도 중요하고 비젼도 아름답다.

그러나 미래의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조성해가는 책임자로서 사명도 크다. 따라서 학예연구원의 그 업무도 다양하게 되므로 분야별 업무분담과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기도 하며 그 정체성 정립이 무엇보다 탄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 국·공·사립박물관과 달리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을 살려 한국의 대학박물관을 한국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그 기능을 확장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학예연구원은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연구동향을 파악하면서 창의력을 배양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하며 대학과 일반 교육수혜자의 요청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채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학예연구원은 학계와 지역사회의 연계체계 구축의 중심이 되기도 할 것이다.

즉, 양방향 소통의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박물관은 고정적 정보제공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를 상호 작용적 형태로 이동시키는 정보소통자의 역할을 맡게 되므로 학예연구원은 소장

품의 DB구축을 기반으로 발달되어 가는 최신미디어를 활용하고 통합하여 연구자 각각의 지식과 기술의 호환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공하는 체제의 정보사회의 중심자가 되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솟터와 같이 정보와 문물센터의 중심관리자가 되기에 학예연구원은 정보이용의 다양화를 제시해주는 문화 창조의 기반 세력권이 되기도 한다.

문화 정보의 길잡이 역할이 주어지므로 앞으로의 학예연구원은 그 역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각 될 것이다. 어쩌면 문화 권력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학예연구원의 역할증대와 변모는 학예연구원의 위상에도 변화를 줄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학예연구원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인류의 미래문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그 미래는 밝으나 그만큼 연구원의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미래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다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학예연구원 스스로가 대학박물관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목적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박물관은 한국의 역사 · 고고 · 민속연구와 그 전개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강하였다. 그 특성을 기반으로 실존하는 유적과 유물을 수집 · 정리 · 보관 ·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는데 이 기존의 역할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 · 문화 · 예술에 관한 전시도 모두 사이버공간에서의 기획이 많아지고 영상, 모형 중심이 되어가므로 실물이 존재하는 대학박물관만이 역사실물이 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역사 · 고고 실물이 있는 대학박물관의 전시특성을 살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연구원은 우리 문화유적의 보존과 개발의 주체가 되고 문화유적 보존의 지킴이가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박물관의 영역이 박물관 밖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문화유적은 현장 박물관화 되어가야 하므로 대학박물관은 유적 현장박물관의 관리운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한국대학박물관의 모든 사업의 성패는 학예연구원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대학박물관 연구원에게는 항상 정확한 학술적 가치판단기준과 폭넓은 문화의 이해와 청렴한 선비정신과 같은 맑은 도덕심과 많은 일을 추진하는 기개와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수도자와도 같은 헌신과 봉사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또다시 새로운 10년으로 향하여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이 보다 복잡하고 힘들다 하여도 과거와 같이 정진과 열정, 헌신의 발걸음으로 이어진다면 학예연구원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기에 우리의 비젼을 아름답게 그려야만 한다.